

韓國의 古代 밭遺構에 대한 檢討

金 炳 燮 *

목 차

- I. 머리말
- II. 밭遺構의 調査現況
- III. 밭유구의 類型分類
- IV. 밭유구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맺음말을 대신하여-

< 요약 >

1990년대 이후 경작유구의 조사로 인하여 농경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직 도작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진주 대평리에서 무문토기시대의 대규모 밭터가 조사되고 나서야 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밭 유구를 집성하여 향후 밭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밭 유구가 조사된 유적은 25개소인데, 대부분이 낙동강유역과 금강유역에서 조사되었다. 고대에는 경영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논보다는 밭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낙동강·금강유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밭의 조사 예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밭은 밭 구획, 고랑과 두둑의 존재 여부, 고랑의 조성형태에서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밭의 형태 차이는 시기나 지형여건보다는 밭을 경영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밭을 경영할 경우 지속적인 지력유지가 필요한데, 施肥法이 보급되기 전에는 休耕, 深耕, 경작방향의 이동, 두둑과 고랑의 전환 이용 등 지력회복을 위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밭의 형태는 경영형태에 의해 자주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밭유구의 조사는 논과 마찬가지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발굴조사에서 밭유구의 관정을 위한 밭유구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 밭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둑·고랑·다양한 경작흔·구획시설등이다. 이 모든 것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밭유구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되는 것은 耕作面과 耕作痕이다.

[주제어] 밭, 두둑, 고랑, 경작면, 경작흔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연구원

(접수일 : 2003. 10. 22, 심사일 : 2003. 11. 3, 심사완료일 : 2003. 11. 28)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논·밭 등 耕作遺構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농경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농경과 관련된 연구는 農耕具와 같은 유물과 유적에서 검출된 곡물자료가 연구의 주 대상이었으나 생산지인 논과 밭이 조사됨에 따라 農法과 관련된 연구¹⁾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밭에 비하여 논 유구의 조사사례가 월등하며, 농경연구의 주된 관심도 稻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밭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하다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晋州 大坪里遺蹟에서 대규모 밭유구가 조사되어서야 비로소 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밭유구의 수는 많지 않지만, 조사된 밭유구 집성 및 유형분류를 행하고, 밭유구 조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향후 밭유구 조사 및 관련된 농경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밭遺構의 調查現況

한국에서 지금까지 밭유구가 조사된 유적은 약 25개소이다. 이중 평면에서 밭의 형태를 알 수 있고, 밭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잘 남아있는 유적은 하남 미사리(도면 13)·진주 대평리(도면 1-7)·진안 여의곡(도면 13)·부여 구봉리(도면 12)·대구 동천동(도면 11)·밀양 살내(도면 8)·함안 이룡리유적(도면 9) 등이다. 좁은 범위에서 확인되어 개별 단위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밭으로 인정하는 데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는 유적이 많다. 그리고 대구 동호동·밀양 금천리유적등 층단면에서만 밭의 고랑형태가 확인된 유적도 있다. 이 모든 유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밭유구가 조사된 25개소의 유적의 분포를 보면 영남지역에서는 낙동강유역권 13개소, 태화강유역권 1개소, 남해안지역권 2개소, 호남지역에서는 영산강유역권 1개소, 호서지역에서는 금강유역권 5개소, 경기지역에서는 한강유역권 2개소, 임진강유역권 1개소이다. 영남지역에서의

1) 하남 미사리유적에서 조사된 상층과 하층밭의 두둑과 고랑의 형태를 가지고 休閒과 常耕連作과 관련한 김기흥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두둑과 고랑의 형태를 가지고 휴한이나 상경연작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金基興, 1995, 「미사리 삼국시기 밭 유구의 농업」 『歷史學報』 第146輯.

郭鍾喆·楊花英, 2000, 「第1章 埋沒 논 遺構」 『昌原盤溪洞遺蹟II』

조사 사례가 월등히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호서지역이다. 논유구 또한 영남지역과 호서지역에서의 조사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강원·호남지역에서도 밭굴조사에서 경작유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앞으로 조사사례는 늘어날 것이다.

밭유구의 立地形態는 무문토기시대에는 대부분 江邊 沖積地인데, 원삼국시대 이후는 강변 충적지가 중심이 되지만, 谷底나 扇狀地·丘陵斜面에도 밭유구가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논밭의 轉換事例가 증가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엿보인다. 그리고 구획된 밭은 대구 동천동·동호동·서변동유적(도면 10)에서 확인된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결과에서 보면 금호강유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 봉황동유적(도면 7)의 경우 植物硅酸體分析에서 벼가 다량으로 검출되었고, 청도 송읍리유적도 벼만 검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瓜破유적에서 두둑과 고랑의 형태를 갖춘 논이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²⁾ 봉황동·송읍리유적의 밭유구는 논이 한 형태이거나 밭에서 육도를 재배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 1〉 밭유구 조사현황

번호	유적명	연대	유형	두둑 너비 (cm)	고랑 너비 (cm)	범위 (m)	경작 관련흔	분석결과 검출작물	입지 유형	지역	비고		
1대평리	옥방1지구 (진·박)	무문토기 시대	A1	20-60	32-60	12×5.5	고랑내 파종흔	식물규산체 : 조, 기장, 명아주	충적지	남강유역	채질?		
				18-63	25-47	7×6.5							
	옥방1지구 (경·연)	무문토기 시대	A1			36.5×12							
				옥방 2지구	무문토기 시대	A1	28-44	28-40			33×152		식물규산체 : 벼
	옥방 3지구	삼국시대 1호	IIA2	40-80	30-70	1,600여평 ↑	고랑 일부 w형 기경흔	식물규산체 : 벼			충적지	남강유역	등고선 직교 2개단위 구별
				40-60	40-100								
		2호	A2	40-80	30-70	200여평 ↑	고랑 일부 w형 기경흔	식물규산체 : 벼					
				40-60	40-100								
		3호	A2	40-80	40-60	15여평 ↓							
				4호	A2	40-60	50-80	60여평 ↓					
5호		A2	40-60	30-50	30여평 ↓	고랑 일부 w형 기경흔	식물규산체 : 벼						
			50-90	20-40				40여평 ↓					
무문토기 시대 6호	A1	80-100	40-50	230여평 ↑		식물규산체 : 벼	등고선 직교						
		7호	A1	50-70	40-60	230여평 ↑							
8호	IIA1	60-100	30-70	1,300여평 ↑	고랑 일부 w형 기경흔	식물규산체 : 벼	4개단위 구별						
40-60	40-80												

2) 大阪市文化財協會, 2002, 『瓜破遺蹟發掘調査報告Ⅱ』市營瓜破東第2住宅建設工事に伴う發掘調査報告書.

번호	유적명	연대	유형	두둑 너비 (cm)	고랑 너비 (cm)	면적 (㎡)	경작 관련흔	분석결과 검출작물	인지 유형	지역	비고		
1	진주대평리	옥방 3지구	9호	A1	40-60	40-60	30여평 ↑			총적지	남강유역		
			10호	A1	30-60	40-100	150여평 ↑	고랑내 원형의 흙				2개단위 구별	
			11호	A1	80-100	20-40	70여평 ↑						
			12호	A1	60-80	40-60	150여평 ↑					2개단위 구별	
			13호	A1	60-80	40-60	380여평 ↑						
	옥방 4지구	삼국시대	II A2	23-60	24-80								
	옥방 5지구	무문토기 시대	A2	40내외	40내외	155×20 ↑						5개단위 이상	
	옥방 6지구	삼국시대	A2	50-60	50-60								
	옥방 8지구	무문토기 시대	II A2					탄화곡물:두류, 수수, 조				8개단위 2개단위 이상	
	옥방 9지구	삼국시대 I층	II A2	40-50 60-70	50-60 30-40	34×56 ↑						2개단위 구별 등고선 직교	
		삼국시대 II층	II A2	40-60 60-70	40-50 40-45	20×36 16×3 ↑		식물유체 : 벼, 조, 기장, 팥				4개단위 구별 등고선 평행	
		무문토기 시대 III층	II A1	40-60 40-80	40-50 40-50	6.5×13 3×8 ↑						2개 단위 등고선 직교	
		무문토기 시대 IV층	A1	40-60	40-50	24×8.5							
	어은 1지구	무문토기 시대	A1, C, B2			4000평 이상		식물유체 : 벼, 조, 기장, 콩?				등고선 직교	
어은 2지구	삼국시대	II A2	30-40	40-60	117×40				2개 단위 이상				
2	밀양 금전리	무문토기 (전기)						총적지	밀양강유역	단편만 확인			
3	밀양 내	상층	무문토기 (후기)	II A1	50-80	50-80	28×14		총적지	밀양강유역			
		하층	A1	50-55	50-55	60×30 ↑		식물규산체 : 피?					
4	밀양 신안	무문토기 (후기?)	A2	45-55	45-55	6×5 ↑			선상지	밀양강유역			
5	청도 송읍리	무문토기	II B2					식물규산체 : 벼	총적지	밀양강유역			
6	대구 봉호동	무문토기	I		5-20			식물규산체 : 벼	총적지	금호강유역	단편만 확인		
7	진안 여의곡	무문토기	A	35-65	35-65	107×40 ↑		식물규산체 : 조, 피, 울무, 기장	총적지	금강유역			
8	논산 마전리 시대	무문토기	B1			9×6 ↑			곡저	금강유역	논밭전환? 등고선 직교		
9	광주 신철동	원삼국시대	B1	40-70	10-25				구릉사면	영신강유역	등고선 평행		
10	대구 서번동	무문토기	I						총적지	금호강유역			
		원삼국?	B2		20-50	27×10.5							
11	서천 송내리	상층	삼국시대 (4C)	B2		10-25 14-36	25×4 ↑		구릉사면	금강유역 서해안지역	등고선 평행		
		하층											
12	창원 반계동	삼국시대 (6-7C)	A2				두둑, 고랑에 파충흔	식물규산체 : 벼, 삼, 기장	곡저	남해안지역	논밭전환? 등고선 직교		
13	김해 봉황동	삼국시대	A2	40-70	35-60	16×9 ↑		식물규산체 : 벼, 피, 맥류	총적지	남해안지역	논밭전환?		
14	울산 어음리	삼국시대?	B2		20 14-16	72×12 ↑			총적지	태화강유역			
15	대구 동원동	삼국시대	I A2	40-60	60-80				총적지	금호강유역			
		무문토기	I B2	40-60	40-60								
16	대구 진천동	무문토기-고려 사이	A2	30	22	34×10 ↑			선상지	낙동강유역			

번	유적명	연대	유형	두둑 너비 (cm)	고랑 너비 (cm)	범의 (m)	경작 관련흔	분석결과 검출작물	입지 유형	지역	비고
17	경산 입당동	삼국 통일 신라(6-8C)	I?B2		15-20		주혈열		구릉사면	금호강유역	
18	부여 구봉리	상층밭	시기불명	B1		50?	고랑내 소형 흙		충적지	금강유역	논밭전환?
		제 3 경작면	삼국시대	A2							논밭전환?
		제 2 경작면	삼국시대	A2							
19	부여 서나성	통일신라 시대?	A2					충적지	금강유역		
20	하남 미사리	상층	삼국시대 (5-6C)	A2	20-40?	60-80?			충적지	한강유역	
		하층	삼국시대 (4C)	A2	70-80	70-80	고랑내 원형 파종흔				
21	의정부 민락동	삼국시대	A2	70-80	50	5×6		식물구산체 : 수수	곡지	일진강유역	
22	산청 묵곡리	삼국시대?	A2	50-80?	40-50?	68×40 ↑			충적지	남강유역	
23	화천 용알리	조선시대	A2	50	50	379평 ↑			충적지	한강유역	
24	진주 상촌리	시기불명	B2		100내외	55×45			충적지	남강유역	
25	함안 이룡리	1G 상층	조선시대 (후기?)	A2	35-40	40-45	18×9 ↑		충적지	낙동강유역	
		2G 상층	조선시대 (후기?)	II A2	55-70 30-45	20-30 15-20	18×9 ↑	두둑에 구상 파종흔			
		2G 중층	조선시대 (전기)	A2	40-50	30-40	18×9 ↑	두둑에 구상 파종흔			
		2G 하층	조선시대 (전기)	A2	50-90	40-50	18×9 ↑	두둑에 구상 파종흔			
		3G 상층	조선시대 (후기?)	II A2	80-110	50-70	18×9 ↑	고랑 기경흔 두둑 파종흔			
		3G 하층	조선시대 (전기)	II A2	30-50 40-60	50-60 40-50	18×9 ↑				

Ⅲ. 밭유구의 類型分類

밭유구는 경작토에 남아있는 두둑과 고랑의 검출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밭굴조사에서 확인되는 두둑이나 고랑은 결국 밭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경영자의 意圖·非意圖와 관계없이 廢棄되면서 최종적으로 남겨진 두둑·고랑흔(耕作面)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작면은 밭유구 분류의 기본 屬性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밭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분석을 통해 밭유구의 분류가 가능하다.

밭유구에 대한 분류는 진주 대평리유적에서 확인된 밭을 대상으로 고랑의 有無와 이랑의 斷面形態에 따라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이상길의 안³⁾, 전국에서 확인된 밭유구를 대상으로 6

3) 李相吉, 2000, 「南江流域의 農耕-大坪地域 밭을 中心으로-」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광종철의 안⁴⁾, 대평리 옥방3지구의 조사에서 확인된 밭을 대상으로 무문토기시대는 6가지, 삼국시대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송영진의 안⁵⁾이 있다.

3인의 분류는 밭유구 이해 많은 도움을 주지만, 분류의 기준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혼란의 발생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밭유구에 대해 다시 분류를 행한다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 조사된 밭유구의 이해를 돕고자 밭유구 구성과 관련된 巨視的인 分類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밭 區劃과 관련하여 2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I류 : 개별 단위 밭 주위에 구획 시설(도랑 혹은 둑)을 갖춘 것.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유적은 대구 동천동·서변동·동호동유적이다. 동천동유적에서 구획 둑내에 두둑과 고랑을 갖춘 삼국시대의 밭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천동·서변동·동호동유적에서는 모두 도랑으로 이루어진 구획시설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에 확연한 두둑이나 고랑을 갖춘 밭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동천동유적에서는 일부 구획내에서 고랑과 같은 경작흔이 확인되었고, 동호동유적에서는 단면에서 고랑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II류 : 별도의 구획시설 없이 고랑이나 두둑이 끊어지거나 형태를 달리하여 구별되는 것. 대평리·살내·이룡리유적에서 확인되는 구획단위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그 외 유적에서는 구획단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정확한 현상을 알 수 없는데, II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② 두둑과 고랑의 존재형태에 의해 3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A류 : 두둑과 고랑을 갖추고 있는 것. 이 형태는 밭 조성의 기본형태로 생각된다. 밭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作物 生育에 필요한 耕作土의 확보이다. 경작토 확보를 위해 흙을 퍼 올린 부분이 두둑이며, 흙을 퍼 낸 부분이 고랑이 된다⁶⁾. 두둑과 고랑의 단면형태·너비·

4) 郭鍾喆, 2001, 「우리나라의 선사~고대 논 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5) 宋榮鎮, 2001, 「IV. 고찰 - 2. 경작유구」 『晉州 大坪里 玉房 3地區 先史遺蹟』慶商大學校博物館.

6)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구덩이가 이어지는 형태를 고랑보다는 파종처 혹은 작물 식재흔으로 보는 견해(이상길 2000, 김도현 2003)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播種이라는 것은 결국 밭에 작물 씨앗을 심는 것인데, 씨앗에 비해 흙이 매우 크고 때로는 깊이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상태에서 보면, 이러한 구덩이에는 경작토 상부퇴적도인 모래가 채워져있다. 구덩이에 모래가 퇴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설이 필요하다. 하나는 작물을 파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덩이가 만든 직후 작물 씨앗을 파종하기 직전의 짧은 시간내에 홍수등에 의해 매몰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감자·고구마·무·마 등과 같은 根菜類 작물재배에 있어 작물수확 후 구덩이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홍수 등으로 매몰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현재 농사짓기에서 보면 씨앗을 심기 위한 파종처를 크고 깊게 구덩이 형태로 만들지 않으며, 파종처를 만든 직후 파종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자의 경우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재배작물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지면에 구덩이만 파고 작물을 심는다면, 충분한 경작토가 확보되지 않아 작물의 생육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덩이가 열을 이루는 형태는 작물 파종처나 작물 식재흔 보다는 두둑을 만들기 위해 생기는 기경흔, 즉 고랑의 한 형태로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기경흔·작물 식재흔등에 의해 세분 가능하지만, 대평리유적을 제외하면 전모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다.

B류 : 두둑 없이 고랑형태의 數條의 溝가 列狀으로 남아 있는 것. 이러한 형태는 대구 서변동·울산 어음리(도면 7)·서천 송내리유적(도면 13)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을 밭으로 볼 것인가, 아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작토층에서 확인되는가, 아니면 경작토 직하 기반층에서 확인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두둑에 흙을 북돋기 위해 고랑을 평상시보다 깊이 갈면, 두둑이 삭평되어도 구상의 형태로 고랑부분이 남는다. 후자의 경우 3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地力を 높이기 위해 기반층의 흙을 경작토로 바꾸려고 深耕했을 때의 흔적이 기반층에 남는다. 둘째는 무·우엉·참마등과 같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根菜類의 경우, 생육을 돕기 위해 경작토 아래까지 깊이 갈아 두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뽕밭에 있어 뽕나무 뿌리의 생육을 위해 기반층을 미리 掘鑿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경작흔은 넓고 깊으며, 耕作面積도 넓다⁷⁾.

C류 : 두둑과 고랑 없이 원형의 흙으로 이루어진 것. 대평리 어은 1지구에서는 小穴群으로 명명된 형태가 확인되었는데,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옥방 3지구 11호 밭, 옥방 4·6지구에서는 點列線狀으로 확인되는데, 고랑 혹은 두둑과 관련된 작물 植栽痕인지, 아니면 별도의 밭 형태인지 확실하지 않다.

③ 고랑의 조성형태에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류 : 고랑이 울퉁불퉁하며 굽은 것. 대부분의 무문토기시대 밭이 여기에 해당한다. 밭을 일구는 起耕技術이 초보적이기 때문에 정연하지 않다.

2류 : 고랑이 직선적인 것. 삼국시대 및 그 이후의 밭은 대부분 이 형태이다. 기경기술의 발달과 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선적인 고랑의 형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밭의 분류에서 각 유형과 유형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밭을 경영할 경우 지속적인 지력유지가 필요하다. 施肥法이 보급된 이후에는 밭의 형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休耕, 深耕, 경작방향의 이동, 두둑과 고랑의 전환 이용 등 지력회복을 위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 단위의 밭에 있어서 그 형태는 자주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밭 형태의 차이를 시기나 지형여건과 관련시키기보다는 밭을 경영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7) 佐藤甲二, 2000, 「畑跡の耕作痕に關する問題點と今後の課題」 『はたけの考古學』 日本考古學協會2000年度 鹿兒島大會資料集 第1集.

IV. 발유구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맺음말을 대신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유구는 1992년 광주 신창동유적과 하남 미사리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후 1997-1999년까지 3년 간에 걸친 남강댐수몰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무문 토기시대·삼국시대의 대규모 발터가 확인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발유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에도 대평리유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규모의 발유적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에 발유구를 인식하고 조사한 경우보다는 偶然한 경우에 발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유구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한 體系的인 接近方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유구의 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유구를 어떻게 확인·조사하는 가이다. 발굴현장에서 발의 조사는 논의 조사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평리유적에서와 같이 발토양 상면에 아무런 교란 없이 상당한 두께의 모래가 퇴적되었을 경우, 토층상에서 두둑과 고랑의 굴곡이 확인되어 발으로 판단되면 평면에서 발유적의 확인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운은 발굴조사에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발경작층을 덮은 퇴적물이 경작토와 뚜렷이 구별되지 않거나, 발경작층 상부에 지속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면 하층의 경작토가 교란되어 하층의 발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토층 단면에서 이러한 상황이 판정되어야 하는데, 발토양의 구별과 기경흔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발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굴조사에서 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으면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발굴조사에서 발유구를 인식하고 확인함에 있어 발유구의 認定基準이 필요하다. 발유구를 구성하는 요소는 두둑·고랑·다양한 경작흔·구획시설등이다. 이 모든 것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발유구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되는 것은 두둑·고랑흔(경작면), 경작흔⁸⁾이다. 이 가운데 경작흔의 경우 두둑을 만들 때 생기는 고랑과 심경에 의해 기반층에 생기는 구상의 경작흔은 상호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다. 고랑과 기반층의 경작흔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확인되는 층위도 다르기 때문에 토층 단면에서 확인이 필수적인데, 이 두 가지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8) 경작흔에는 작물 식재흔적, 근채류의 경우에는 수확 흔적, 두둑을 만들거나 두둑에 경작토를 퍼 올리기 위해 고랑에 남는 기경흔적, 심경에 의해 기반층에 남는 경작흔적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혼용되고 있는데, 뚜렷한 구별이 필요하다. 두둑의 홈과 고랑의 소형 홈은 작물 식재흔, 고랑에 남은 구상이나 울퉁불퉁한 흔적은 기경흔, 심경에 의해 기반층에 남은 구상의 흔적은 경작흔으로 일단 분류하고자 한다.

경작흔은 경작토 직하 기반층 상면에서 확인된다. 구상의 형태로 정연하지 않고, 연속적이지 않다. 퇴적토에는 기반층의 블록을 포함하고 있다. 중복관계가 분명하며, 퇴적토가 동일하다. 구의 사면 각도가 급경사이다. 고랑은 등간격으로 정연하며, 연속적이다. 고랑내 퇴적토는 경작층 직상층의 퇴적토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⁹⁾. 이러한 고랑과 기반층에 남는 경작흔의 구별뿐만 아니라 발유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과 발유구의 인정기준이 빠른 시일 내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밭을 일구는데 드는 노동력은 논에 비해 많지 않다. 그리고 지형적인 제약도 논에 비해 적다. 따라서 고대에는 논의 조성보다는 밭의 조성비율이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 조사에서 취락의 구성요소로서 경작지에 대한 인식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 조사사례의 증가가 기대된다.

〈附記〉 본 글을 작성함에 광종철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9) 佐藤甲二, 2000, 『앞책』 (주7)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999, 「論山 麻田里 遺蹟」 현장설명회자료집.
- 곽종철, 2001, 「우리나라의 선사~고대 논 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國立晉州博物館, 2001,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 遺蹟』
- 金權中, 2003, 「華川 龍岩里 遺蹟」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金基興, 1995, 「미사리 삼국시기 밭 유구의 농업」 『歷史學報』第146輯.
- 김도현, 2003, 「古代의 耕作遺構에 대한 研究」 울산문화재연구원.
- 金炳燮, 2003, 「密陽 살내遺蹟 發掘調査 成果」 『慶尙考古學』第2輯, 慶尙考古學硏究會.
- 建國大學校博物館, 2001, 『晉州 上村里3-8호 支石墓 및 先史遺蹟』
- 慶南大學校博物館, 2003, 「密陽 琴川里遺蹟」 현장설명회자료집.
- 慶南考古學硏究所, 2002, 『晉州 大坪里 玉房1·9地區 無文土器時代 集落』
- 慶南發展硏究院 歷史文化센터, 2002,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2003, 「咸安二龍里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2001年度 試掘調査 報告書』
, 2003, 『밀양 신안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慶尙大學教博物館, 1999, 『晉州 大坪里 玉房2地區 先史遺蹟』
, 2001,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 東亞大學教博物館, 1999,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 美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1994, 『美沙里』第4卷 서울大學校博物館 篇.
- 서울大學校博物館, 1996, 『議政府 民樂洞遺蹟』
- 鮮文大學校博物館, 2001, 『晉州 大坪里 玉房五地區 先史遺蹟』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경산 임당동 다세대주택신축부지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 嶺南文化財硏究院, 2001, 「大邱 辰泉洞遺蹟 發掘調査」 현장설명회자료집.
, 2002, 『大邱 西邊洞聚落遺蹟 I』
, 2002,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 2003, 『大邱 東湖洞遺蹟』
- 俞炳琫, 2002, 「大邱地域의 初期農耕」 『韓日 初期農耕 比較研究』 大阪市學藝員等共同硏究韓半島綜合學術調査團.
- 李相吉, 2000, 「南江流域의 農耕-大坪地域 밭을 中心으로-」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
- 趙現鐘·張齊根, 1992, 「光州 新昌洞遺蹟-第1次調査概報-」 『考古學誌』 第4輯.

- 全北大學校博物館, 2001, 『鎮安龍潭潭水沒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Ⅷ - 如意谷遺蹟』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蔚山 於音里遺蹟』
- 昌原大學校博物館, 2000, 『昌原 盤溪洞遺蹟Ⅱ』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夫餘 東羅城·西羅城 發掘調査 略報告書』
, 2001, 『구룡-부여간 도로확장 및 포장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
보고서』
- 忠清埋葬文化財研究院, 2001, 『舒川 松內里 遺蹟』
- 日本考古學協會, 2000, 『はたけの考古學』 2000年度鹿兒島大會資料集 第1集.
- 能登 健, 1991, 「畑作農耕」 『古墳時代の研究4-生産と流通Ⅰ』 雄山閣.

A investigation about Ancient Field site of Korea

Kim, Byeong-s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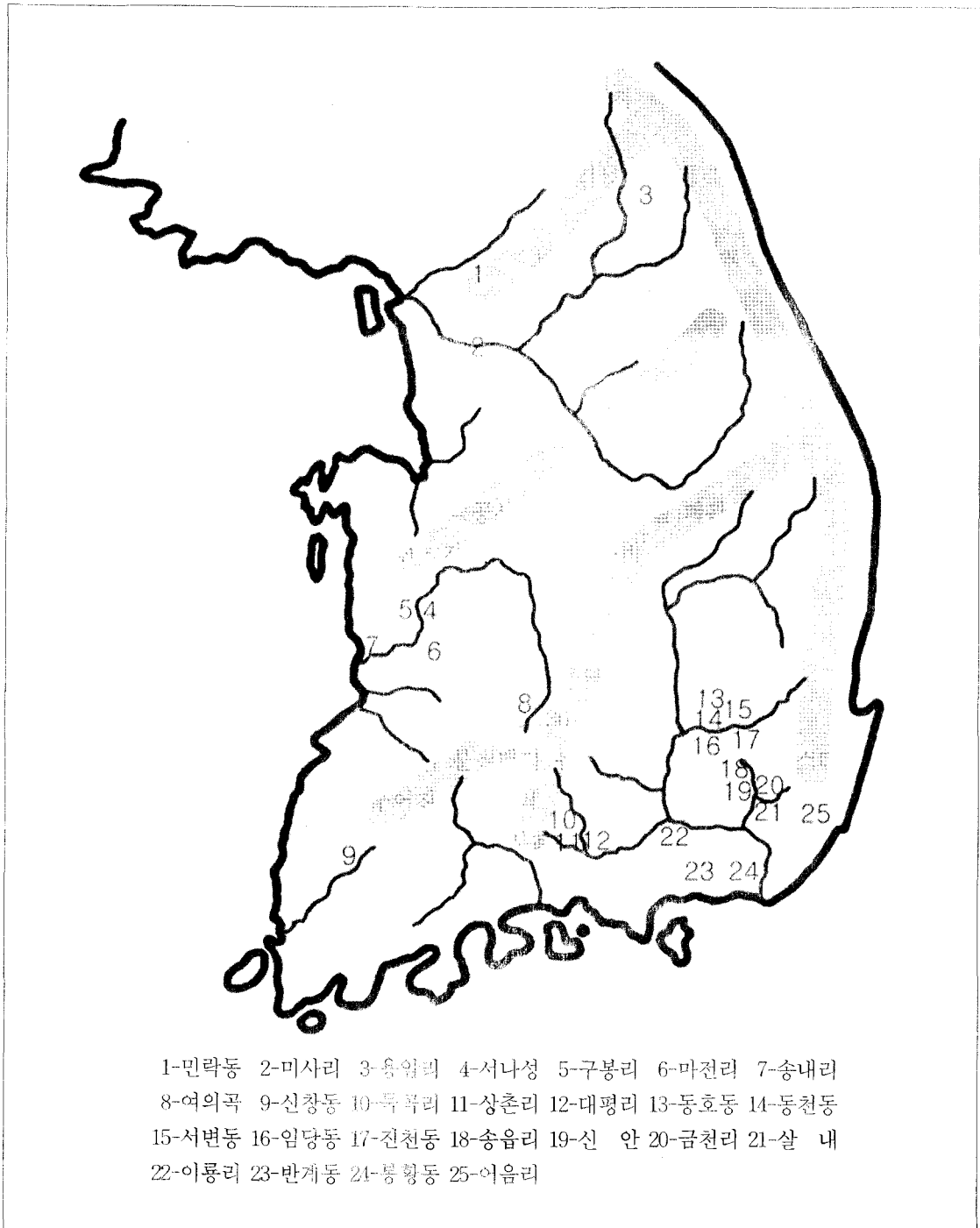
The researches related to rice farming are still mainstream, although cultivation research has a new transition due to investigation of arable land since 1990s. The latter of 1990s, the interest of fields was increased after the large scale investigation of field site of Bronze aged at Daepyeongri, Jinju. In this thesis, we want to be helpful to researches connected to fields, collecting the investigation of field site up to now in Korea.

Up to now, relics which was investigated field site are 25, and most of them were found at the basin of the River Nakdong and River Geum. In ancient, the rate of field was assumed higher than the rate of rice field that was needed a lot labor for management. So, we can presume increase of examples of field investigation on other places in addition to River Nakdong and River G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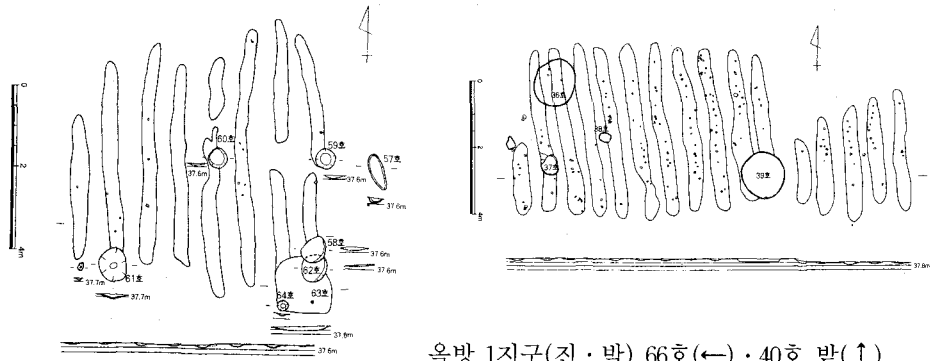
Fields are possible to classify according to whether or not of division, furrow and ridge between field, and the construction type of furrow. The different types of field are considered by the difference of field management method rather than by the time or topography conditions. It is because the types of field have the high possibility of changes by the type of management, when one managed the fields, the continuous preservation of fertility soil is needed, and so, there are behaviors for fertility of soil recovery, like rest plowing, deep plowing, shift of the plowing direction, and substitution of ridge between field and furrow before supply of fertilization.

The acceptable criteria of field site are needed for judgement of field site in undarthing investigation, because the investigation of field site was not as easy as the investigation of rice field. The factors forming the field are ridge between field, furrow, various plowing traces, division facilities and so on. Although above all are not identified in the undarthing investigation, the most important index of field site approval is plowing side and plowing traces.

[key word] field site, furrow, ridge between field, plowing side(耕作面), plowing traces(耕作痕)



도면 1. 발유구 분포도



옥방 1지구(진·박) 66호(←)·40호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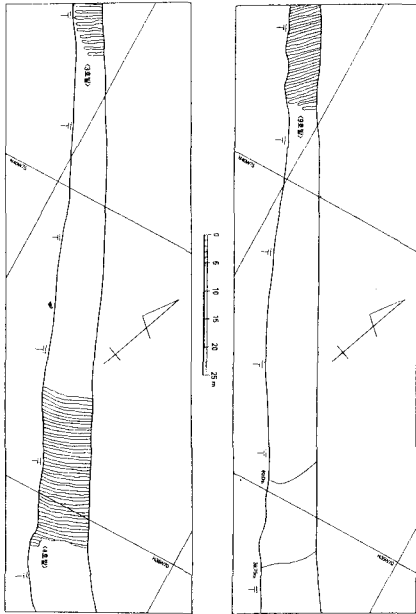


옥방 1지구(경·연) 유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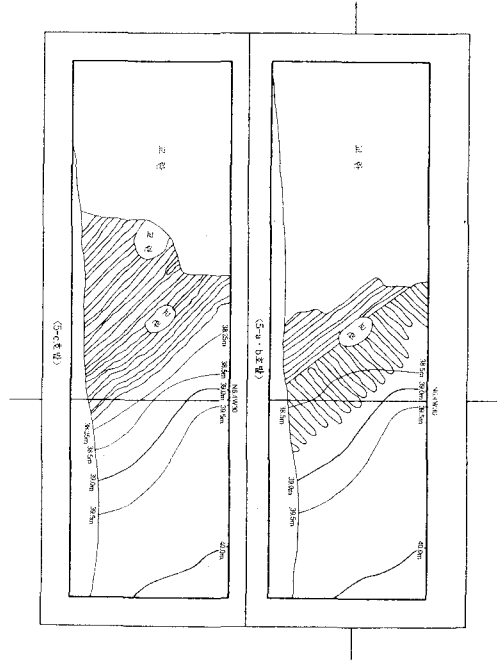


옥방 2지구 발 평면도(축척=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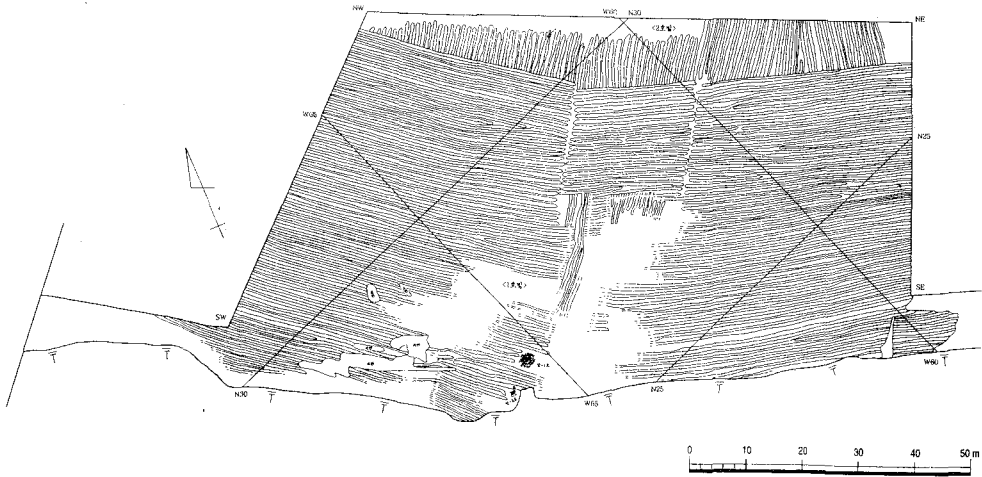
도면 2. 대평리 옥방1·2지구 발



옥방 3지구 3·4·9호 받(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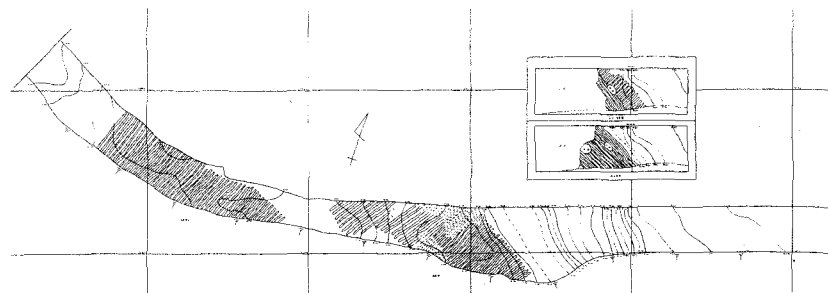


옥방 3지구 5호 받(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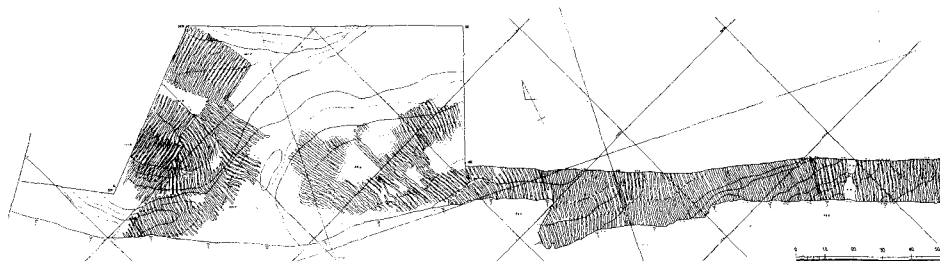


옥방 3지구 6·7호 받(무문토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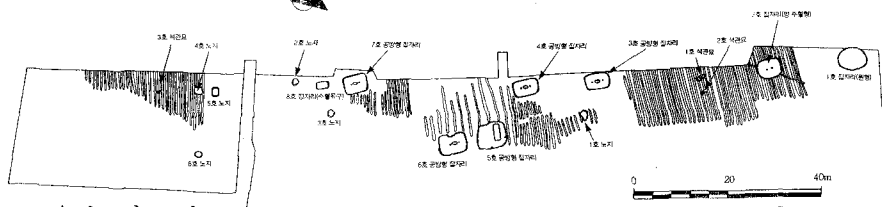
도면 3. 대평리 옥방3지구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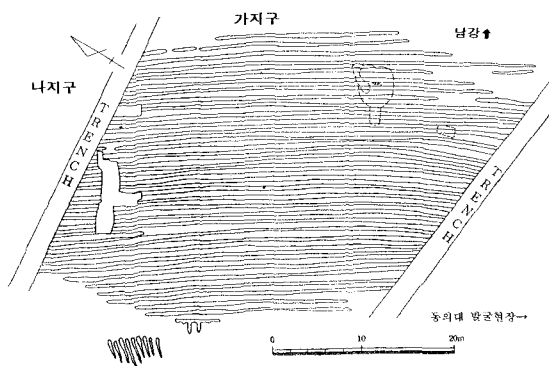
옥방 3지구 6~7호 발(무문토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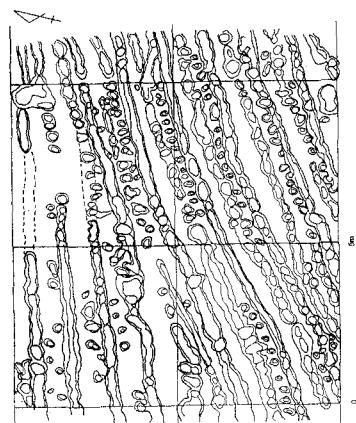
옥방 3지구 8~13호 발(무문토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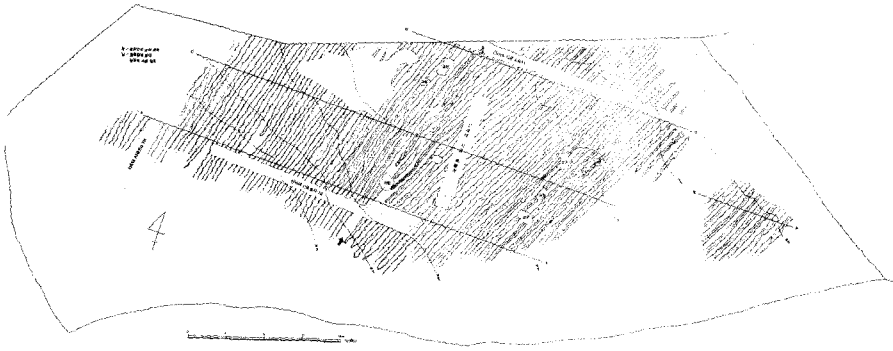
옥방 5지구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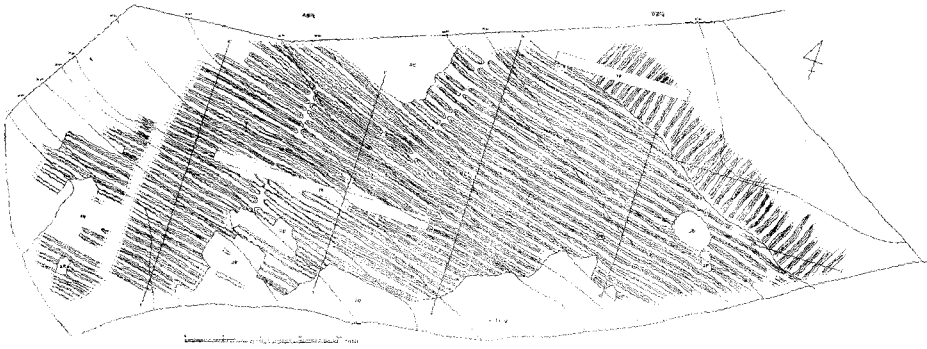
옥방 6지구 발(삼국시대 ↑, 무문토기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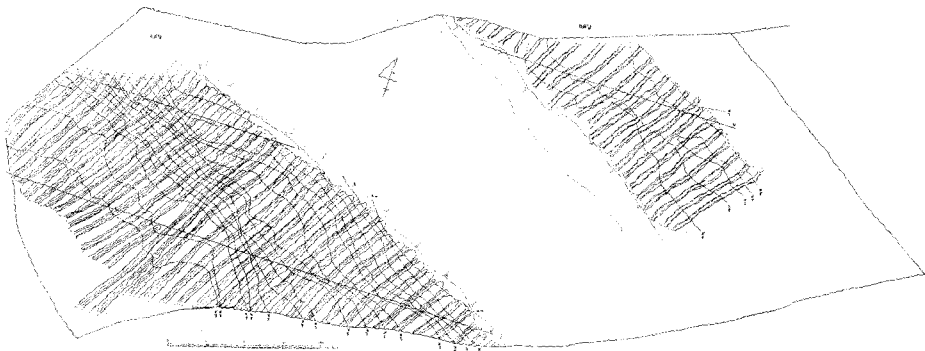
도면 4. 대평리 옥방3·5·6지구 발



옥방 9지구 1층 발(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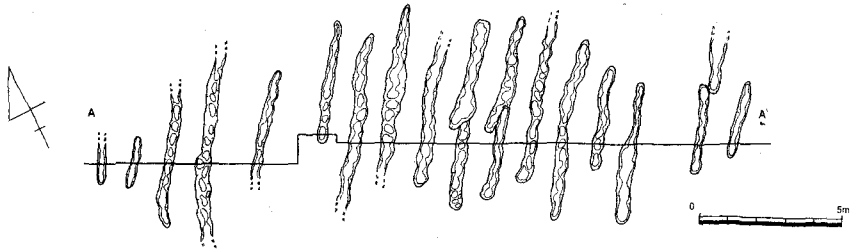


옥방 9지구 2층 발(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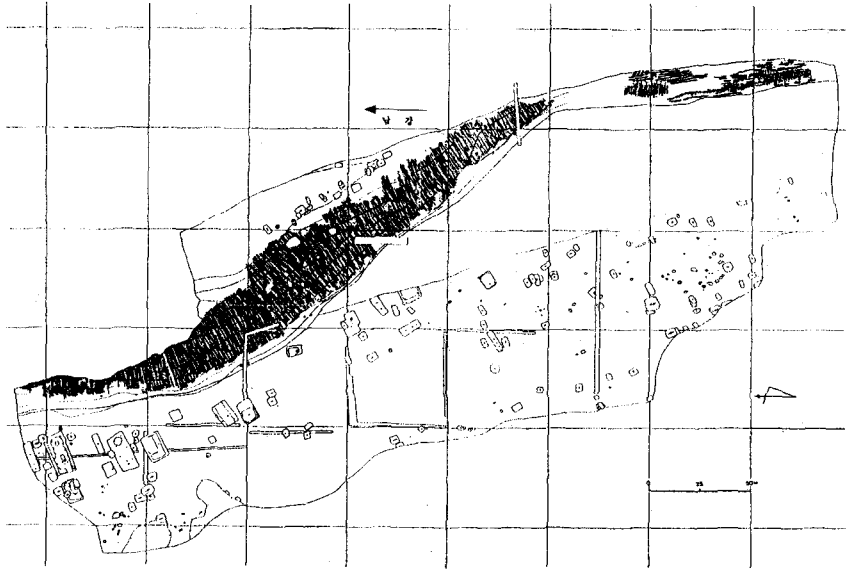


옥방 9지구 3층 발(부문토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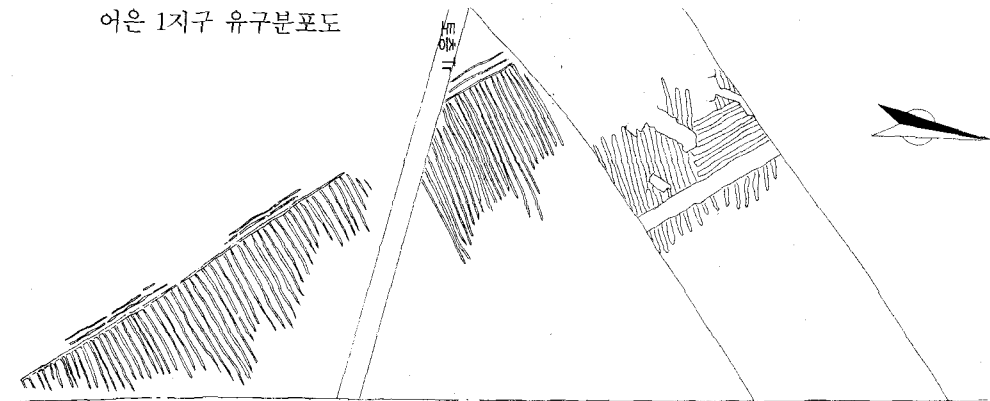
도면 5. 대평리 옥방9지구 발



옥방 9지구 4층 발(무문토기시대)



어은 1지구 유구분포도



어은 2지구 발(삼국시대)

도면 6. 대평리 옥방9지구, 어은1·2지구 발



옥방 4지구 삼국시대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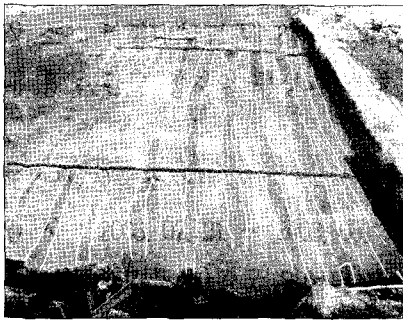
옥방 4지구 무문토기시대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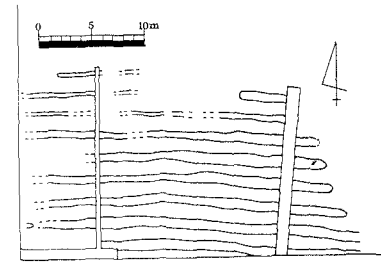
옥방 8지구 무문토기시대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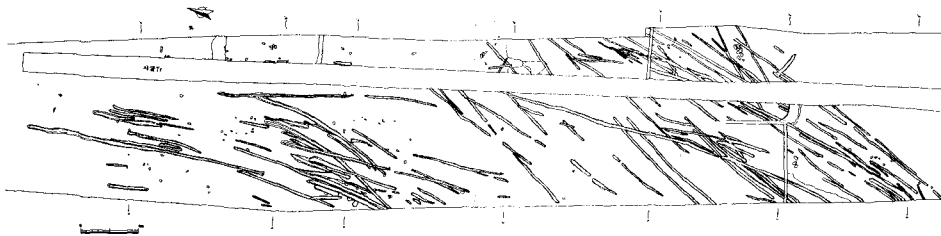
어은1지구 무문토기시대 받



김해 봉황동유적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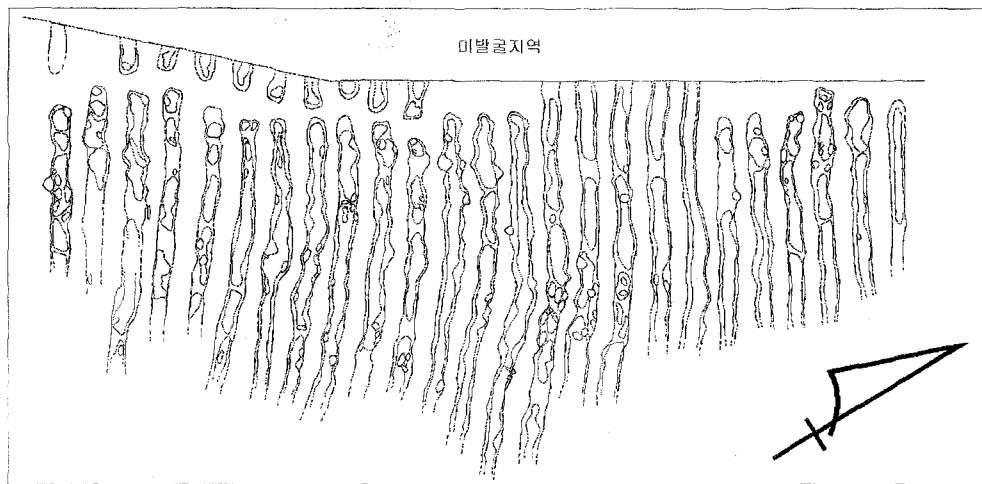


봉황동 하층받 평면도



어음리 유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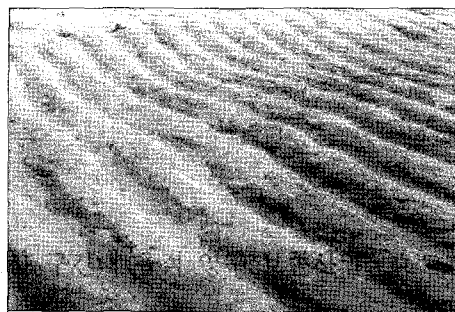
도면 7. 대평리유적 · 봉황동유적 · 어음리유적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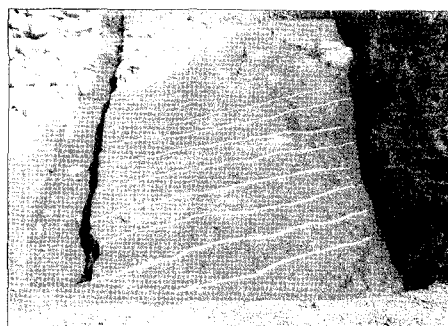
밀양 살내유적 1호 발(축척=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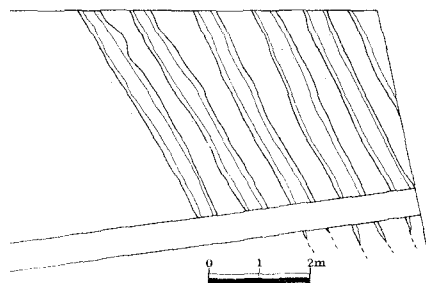
밀양 살내유적 2호 발



밀양 살내유적 2호 발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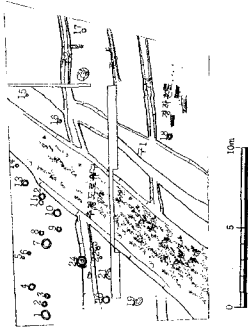


밀양 신안유적 발확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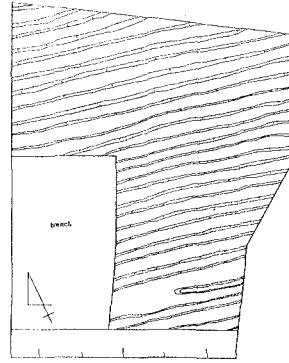
신안유적 발 평면도

도면 8. 살내유적·신안유적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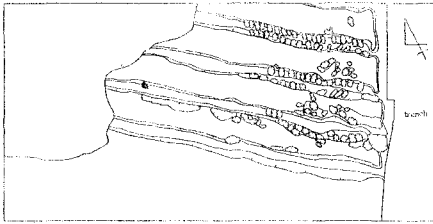


경산 임당동유적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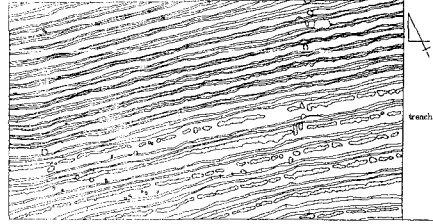
이룡리유적 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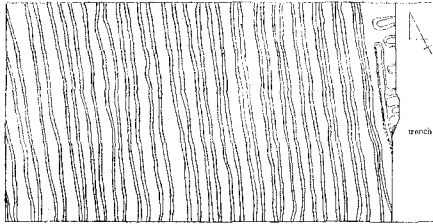
1피트 상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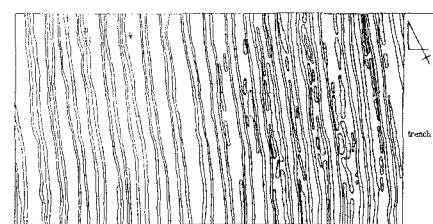
3피트 상층발



2피트 상층발



3피트 하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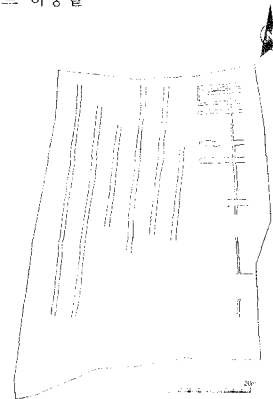


2피트 하층발



대구 진천동유적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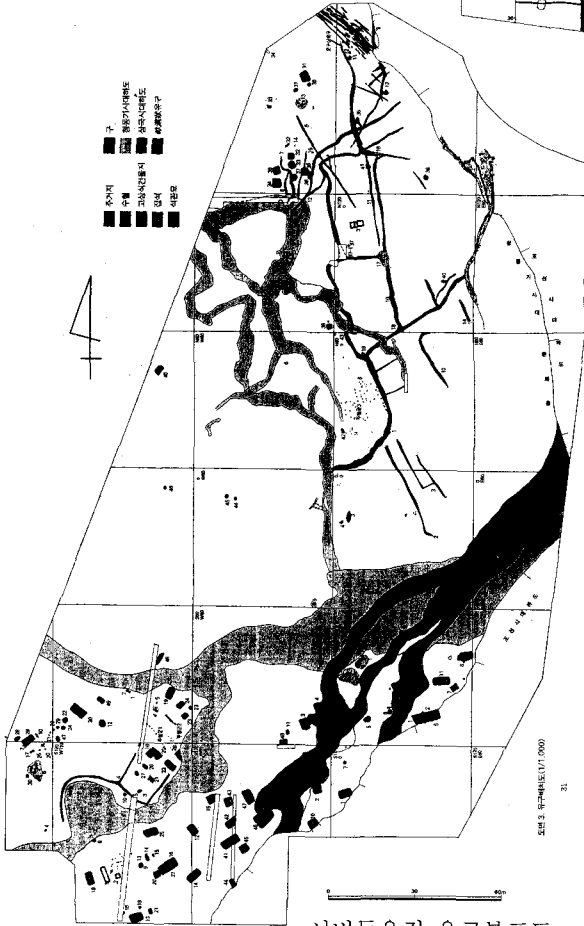
상촌리유적 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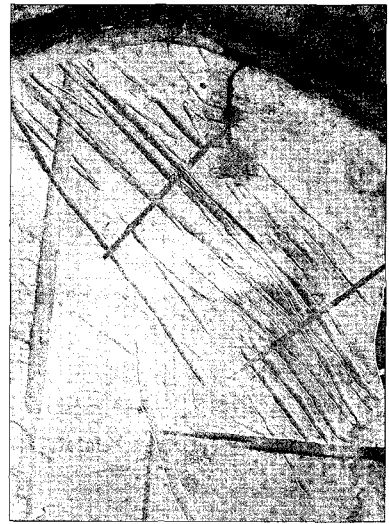
이 문은 임당동유적 · 이룡리유적 · 진천동유적 · 상촌리유적 발



동호동유적 유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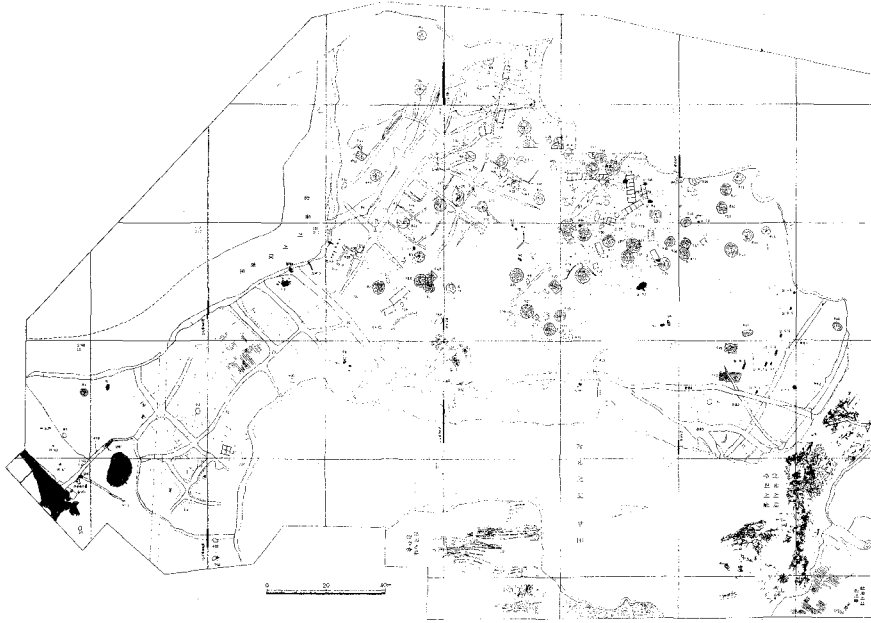


서변동유적 유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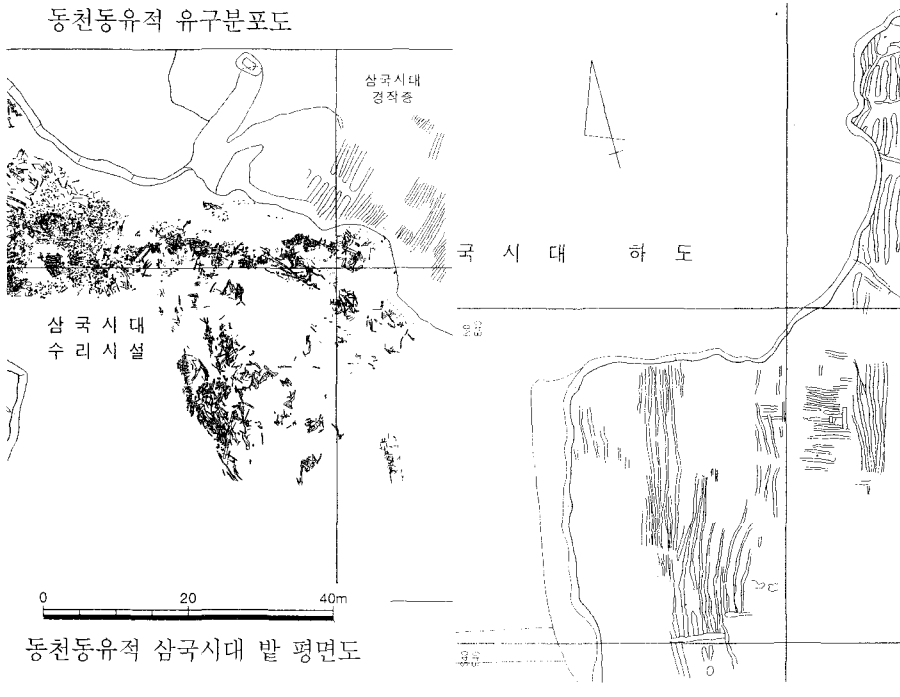


대구 서변동유적 밭

도면 10. 동호동유적·서변동유적 밭



동천동유적 유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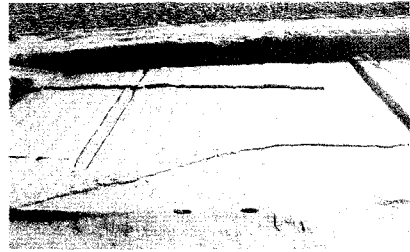


동천동유적 삼국시대 발 평면도

도면 11. 동천동유적 발



부여 구봉리 A지구 상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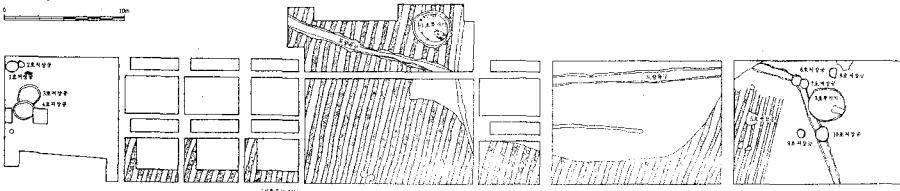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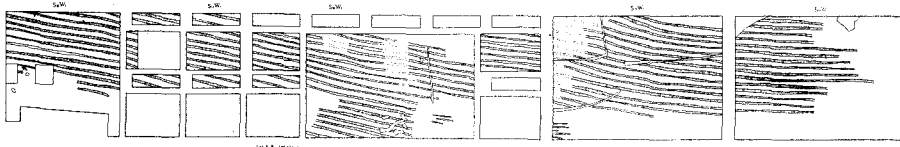


부여 구봉리 A지구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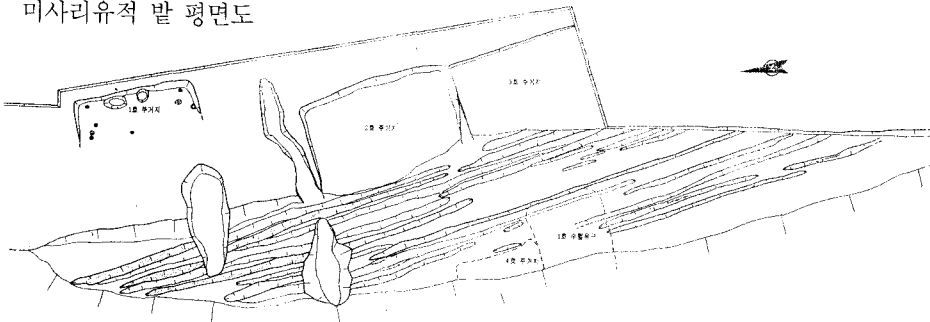


구봉리유적 A지구 제2경작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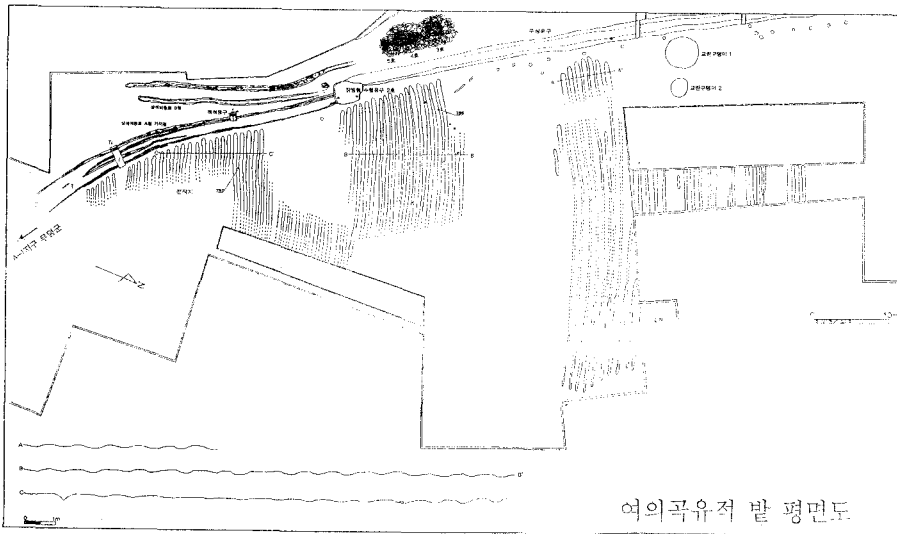
도면 12. 구봉리유적 발



미사리유적 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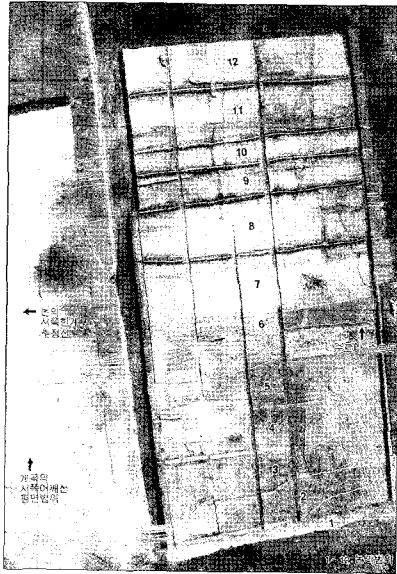


송내리유적 발 평면도



여의곡유적 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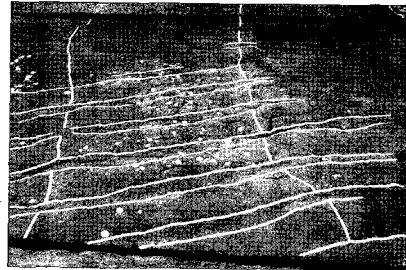
도면 13. 미사리유적 · 송내리유적 · 여의곡유적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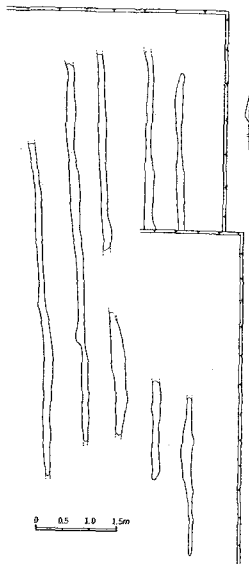
창원 반계동유적 논과 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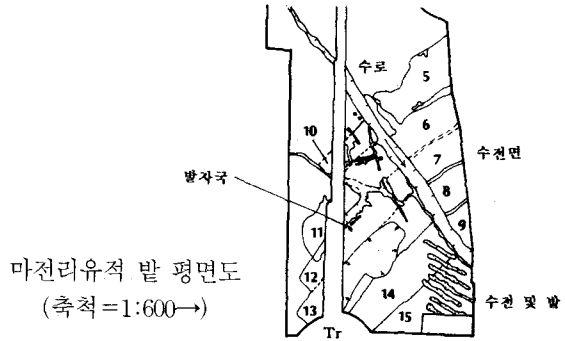
창원 반계동유적 밭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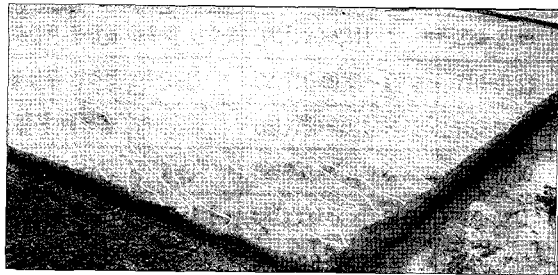
창원 반계동유적 밭 세부



신창동유적 밭 평면도



마전리유적 밭 평면도
(축척=1:600→)



부여 서나성유적 밭

도면 14. 반계동유적 · 신창동유적 · 마전리유적 · 서나성유적 밭